

2023
November

교회 표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쥬빌리소식지

JUBILEE NEWS LETTER



Table of Contents

- 1 담임목사 인사말**
- 2 카자흐스탄 파블로다교회 헌당예배 후기**
- 5 중앙아시아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 7 2023년 평신도대표 보고서**
- 9 선교지소식**
- 11 교회소식**
- 13 11~12월 행사안내**

담임목사 인사말



담임목사 김정호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교회도 분주한 계절을 맞았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이 하루하루 걱정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한해를 돌아보면 늘 감사할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본질을 잃지 않도록 무엇보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교구, 속회, 큐티 및 중보기도 모임 등 교회의 각종 조직을 점검하고 재조직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믿음의 친구들에 맞춰서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형편과 처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찾아 구체적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작은 모임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작은 모임들이 늘어나고 활성화되어서 전체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기도가 응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회에서 2024년 임원단과 교회 리더십이 인준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직분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주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맡은 약속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맹세한 서약은 이루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분의 높낮이가 없고 귀천도 없으며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책임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맡은 직분 성실히 감당하시면 하나님께 인정 받고 칭찬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직분을 맡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신앙 생활에 진심이 담기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지 않도록 바쁜 연말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분주한 연말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6, 새번역)

카자흐스탄 파블로다교회 헌당예배 후기



김성태 장로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는 우리가 미국에서 얼마나 엄청난 부귀를 누리고 풍요롭게 사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선교 중인 조영철 목사님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에는 자동차 보험이나 차량 정기 검사 제도도 없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없으니 사고가 날 경우에 대책이 없는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량 인스펙션이 없어 매연이 심하고 오염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풍요로운 환경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 받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더욱 열심 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을 통해 현지인들과 얘기도 하고 사역을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까인다교회와 인연이 맺어진 것 자체가 선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동역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경숙 장로

저는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읽는 중입니다. 중앙아시아 사역을 보며 바로 광야 같은 사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같았습니다. 먼 길을 안전하고 무사하게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번 식사할 때마다 준비해 주신 손길들 때문에 감동 받았고, 한편으로는 여기서 너무 편하고 풍성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서 선교는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선교가 자선을 베푸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선교지에 계신 분들의 의존성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존성을 해결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번 담임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은 목회 세미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중앙아시아 선교가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되되 그곳에 사는 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분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선교 동역자로서 후러싱제일교회 일원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정임 권사

그곳에 가서 고려인 4세, 한국말 잘하시는 동포 목사님들 보고 놀라기도 했고 열심히 선교하시는 모습에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사할린에서 태어났는데 어떤 방법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전도자로 쓰임 받게 된 목사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척박한 곳에 보내주셔서 선교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기도 제목 주심도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역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현지 물가도 전에 갔을 때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작은 교회라도 한 10개 세울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디마 감리사님 꿈인 그 땅 구입해서 선교센터 지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이루어 주시게 기도드립니다. 선교지에는 자주 가야 관심이 생기고 선교 현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전에 두 번 다녀왔는데 처음 갔을 때 한 장소를 봤고 두 번째 가서 땅을 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들 양학모 집사와 함께 갔었습니다.

김선옥 권사

우리 교회가 중앙아시아 선교를 시작한 지가 약 20년 정도 되었는데, 평소에 ‘선교센터를 어디에 지었을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직접 내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운 사람 따로 있고 와서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블로다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건물을 세웠을까 싶을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파블로다 통나무 교회 교인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선한 씨앗을 뿌려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카자흐스탄 교회인데 현지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카자흐스탄 사람들보다 러시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현지 교회는 가정교회 중심이라 부흥이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에 대한 장기적 혹은 구체적 계획이나 비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다음 세대 꿈을 가진 분들이 중앙아시아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춘 장로

중앙아시아 선교지에 가보니 우리가 미국에서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회의와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감리교회 성소수자 문제로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관심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들을 교단이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정호 목사

카자흐스탄은 무슬림이 지배하는 사회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너무나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를 너무 잘 지었더군요. 참 좋은 프로젝트라는 생각, 우리 교회에 좋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블로다교회 알렉산더 미카이로프 담임목사는 마약혐의로 4차례에 걸쳐 10년이나 감옥생활을 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2009년도 교회가 불에 타 전소된 후 후러싱제일교회가 보낸 헌금으로 다시 세워진 것은 예배당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버림받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쉽게 전해지지 않는 사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지원하려면 교단과 같은 공식 채널을 통해야 합니다. 교단이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를 위험도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돈만 보내고 관계를 잘 맺지 않으면 의존성을 키워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선교는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점입니다. 현재 중앙아시아 선교의 문제 중 하나는 의존성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중앙아시아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김경숙 장로

지난 10월1일 주일 밤 비행기로 우리 일행 7명은 케네디 공항을 떠나 터키의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하루 반 만인 10월 3일 낮에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쉬켅에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에는 30년 전 최초로 러시아 선교를 시작하신 조영철 목사님과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담당하고 계시는 디마(드미트리) 감리사님이 마중 나오셔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의 목적은 화재로 전소되었던 카자흐스탄의 파블로다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뜻깊은 사랑과 정성의 헌금으로 재건되었고 몇 년 동안 코비드로 인해 미루어졌던 파블로다교회의 헌당 예배와 동시에 김정호 목사님의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

비쉬켅은 예상외로 화창하고 온화한 날씨였고 노란 단풍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높은 산들과 눈에 익은 예쁜 꽃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일행은 이처럼 시골 같은 정겨운 도시에 있는 몇 군데 현지인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열댓 명 앉을 수 있는 조그만 교회에 드럼통으로 강대상을 만들고 예배드리는 까인다교회의 젊은 에드워드 목사님을 만났고, 현재 예배당이 너무 좁아서 새로 교회를 짓고 있는 까발리나 리빙스프링교회를 방문하여 아르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을때 네 모퉁이에 교인들의 기도문과 그곳의 돌맹이를 넣고 바닥을 깔았다고 합니다.

조경업을 이중직으로 하신다는 디마 감리사님의 운치 있고 예쁘게 꾸며놓으신 사택과 예배 처소를 둘러보고 비쉬켅에 교회 건축을 위해 물색 중인 땅도 밟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십 년 동안 선교하시며 많은 목사님을 키워내시고 아직도 선교의 열정이 넘치시는 조영철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위해 구입한 집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렸습니다.

10월 5일 목요일

키르기스스탄에서 아침 일찍 차량으로 카자흐스탄 국경까지 가서는 모두 차에서 내려 카자흐스탄 국경을 걸어서 넘은 후에 세관검사와 입국 수속을 마치고 다시 큰 버스에 옮겨타고 카자흐스탄 옛 수도인 알마티로 향하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보이는 카자흐스탄은 산이 별로 없는 나라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누런 벌판에 가끔 옥수수밭이 보였고 무수한 양 떼와 말들이 한가히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오후 1시쯤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건축한 알마티 선교센터에 도착하여 몽골의 우소도베에서 4시간 택시로 오신 박희진 선교사님, 세미나 참석을 위해 손수 김치를 만들어서 22시간 기차를 타고 오신 여자 목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로서 우리는 그들을 쳐다만 보아도 은혜가 넘치는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정성스러운 점심을 대접받은 후에 파블로다 교회를 가기 위해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는 이미 파블로다교

회의 알렉산드리아 목사님이 마중 나오셨고 우리는 교회와 10분 거리에 있는 호텔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저녁에는 파블로다 '빛과 사랑의 교회'에 가서 알렉산드리아 담임목사님과 헤가이 감독님의 인도로 감명 깊은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0월 6일-7일 금, 토요일

이틀 동안 오전에는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목사님들, 신학생들, 사역자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우리 교회의 임원회장인 김성태 장로님이 이번 세미나를 위하여 교회에서 보내신 선교비 3천 달러를 디마 감리사께 전달하였습니다.

김정호 목사님은 인사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항상 헤가이 감독을 ‘우리 민족의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에드워드 헤가이 감독은 고려인 4세입니다. 스탈린 시대에 한민족 말살 정책으로 인해 선조들 10만 명이 기차에 태워져서 시베리아 벌판에 버려졌는데 그중에서 5만 명은 죽고 살아남은 5만 명 중의 후손으로 할머니가 기차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헤가이 감독은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살려준 우리 민족 까리에스키’ 라고, 항상 말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0월 8일 주일

피블로다 교회의 주일 헌당 예배는 알렉산드리아 담임목사님의 인도, 김정호 목사님의 설교, 안드레이 김 목사님의 통역 그리고 헤가이 감독님과 디마 감리사님의 성만찬 집례로 진행되었습니다. 매시간 찬양팀의 찬양은 가사는 알 수 없었지만, 나의 마음을 울리고 코끝을 찡하게 했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예배 시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물줄기가 예배당에 가득하며 성령의 역사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정성으로 준비해 주시던 식탁은 나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모자람도 남음도 없는 간소하고 검소하며 사랑이 담긴 만찬은 나의 뉴욕 생활의 식생활 습관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옆길로 내려가면 만나던 이르트시 강의 평화롭고 유연한 물줄기와 선선한 바람도, 웅장한 러시아 정교회의 근엄함도, 크디큰 모슬렘 사원의 어색함도, 그리고 세계 제일을 뽐내는 이스탄불 공항의 화려함도 모두 뒤로 하고 내게는 오직 피땀 흘려 이룩한 파블로다 교회 교인들과 그곳에 함께 모였던 사역자들과의 성령의 교통으로 나누던 대화와 찬양의 시간과 특별히 성만찬 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말해주며 주시던 떡과 포도주만이 오래오래 나의 마음에 남아있을 겁니다.

모슬렘 나라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분,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고 불림을 받는 분들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선교팀의 일원으로 함께 이 땅을 밟을 수 있었다는 은혜가 너무도 벅차고, 감사하며 모든 여정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023년 평신도대표 보고서

이한수 장로

코비드로 인해 온 세계가 갈팡질팡하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코비드 이전과는 다르지만 “NEW NORMAL”이라는 상태로 돌아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3년이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사회, 조직 그리고 개인들이 한 해의 마감을 준비해 가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속해있는 UMC 교단의 동성애자 목사 안수와 관련된 오랫동안의 논쟁도 어쩌면 이 코비드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10월16일 합동임원회에서 “후러싱제일교회 임원회는 연합감리교회(UMC) 장정 2553에 따라 교단 탈퇴/분리에 대한 과정을 시작한다” 라는 것이 통과되어 교단 탈퇴를 위한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단에서 임의로 만든 탈퇴과정의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교회는 악법이라도 일단은 법으로 제정이 되어있으면 지키고, 추후 그 법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교단에서 요구하는 과정들을 따르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과정을 잘 수행하였지만, 결국은 교단의 교인 참여도가 낮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유로 중간에서 과정이 중단이 되어 교인총회조차 열지 못하고 교단에 남아야 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치러 가면서 현재 우리가 몸담은 교단이 어떠한 교단인지 새롭게 알게 됨과 동시에 우리 교인들의 하나 되지 못함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교단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이미 성경의 본질은 뒤로 물러가 버렸고, 시대의 흐름과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묘하게 사용하며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에, 때로는 연민의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성경에 죄라고 명시되어 있는 행위에 대해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단이 과연 우리가 같이해야 할 교단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연회에서 어떠한 변수가 생길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미 교단이 분리되어 새로운 교단인 GMC가 만들어 졌으니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동안 동성애자 목사 안수에 반대를 하며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많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실 지, 이에 대한 교회의 방안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단의 탈퇴의 본질과는 다른 이유로 이분화되었던 교회가 무언가 새로운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실과 평신도가 하나가 되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 나가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 지도자의 생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경우에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조직(교회)을 이끌어가는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역할이 새삼 강조된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후러싱제일교회는 현재의 UMC 교단에 남게 되었습니다. 2024년의 연회에서 동성애자 목사안수가 인정되는 내용이 장정에 포함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미래의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자 목사를 담임목사와 목회자로 두며 신앙생활을 할 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작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어,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또 발발되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고 살 거처를 잃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발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려 보기 위해 기도해 보지만 제 신앙이 부족해서인지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을 수 없어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계속 전쟁의 빠른 종식을 위해 기도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모두 전쟁들이 하루 속히 종식되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후러싱제일교회가 2025년이면 한어 회중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를 위해 목회실을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고 이 모든 수고에 평신도들도 같이 협력하여 희년의 바른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모든 행사를 준비할 때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후러싱제일교회의 각 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를 이루어 내기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저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네편 내편으로 가르치 말아야 할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속회, 선교회 등등 그동안 코비드로 인해 제한된 활동만 하였던 기관들이 이제 “NEW NORMAL”에 맞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모든 평신도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나가는 귀한 후러싱제일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 : 3~6) 아멘 !

선교지 소식 마중물 선교 (교회지원)

일리노이주 어바나-삼페인 예수사랑교회입니다.

샬롬~ 어바나 삼페인 예수사랑교회에서 인사 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8월에 시작된 예수사랑교회의 가을학기 사역이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벌써 겨울을 앞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전하지 못했던 예수사랑교회의 소식을 몇 가지 전해 드립니다.



1. 예수사랑교회 및 로컬 교회 사역

작년 7월부터 저는 예수사랑교회와 함께 세 곳의 로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삼페인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한 달에 한 번 임시로 설교하러 갔었는데, 2023년 1월부터 로컬 교회 사역이 제 공식적인 사역지가 되었고 연회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예수사랑교회와 세 곳의 미국인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 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지만, 이것이 제게는 너무 값진 경험이라는 것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예수사랑교회에는 ‘선교팀’이 생겼습니다. 제가 미국인 교회에서 설교할 영어 설교의 원고 초안을 작성하면 2명의 선교팀원들이 제 영어 설교를 감수 및 수정해 줍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꼭 필요하고, 이 과정이 결국은 선교의 사역과 연결되기에 ‘번역팀’이 아닌 ‘선교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 새로운 사역과 예수사랑교회의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새로운 사역의 파트너

2023년 1월 첫 예배 때 예수사랑교회에 한 가정이 등록하셨습니다. 남편은 UIUC 박사 학위 후 디케이터 밀리킨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 부인은 삼페인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인 가정입니다. 두 내외가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품고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십니다. 특히 남편 집사님은 가을 학기부터 주중 성경 공부 모임인 ‘새신자반’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역의 파트너가 생기면서 주중 성경 공부를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3. 청년부의 성장과 창립 28주년 기념 예배

지난 9월 28일은 예수사랑교회의 창립 28주년이었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날은 최근 새롭게 신설된 교회 청년부(대학원생 및 미혼 직장인)에서 특별 찬양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 동안 예수사랑교회는 대학부(학부생)에 비해 청년부가 적었는데, 올해 들어 청년부가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학부생들도 청년부의 성장을 보면서 자극받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28주년을 맞이하여 드린 성도들의 헌금으로 말레이시아 HIS 난민학교, 삼페인 푸른나무 한국학교를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HIS 난민학교는 예수사랑교회 가 3년 동안 후원하고 있는 선교의 파트너입니다. 푸른나무 한국학교는 삼페인에 있는 한글학교로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모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정성으로 해외 선교지와 지역 사회를 후원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기쁜 날이었습니다.

4. 2030컨퍼런스

11월 22일부터 2030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매년 추수감사절 기간에 열리는 청년 집회인 2030컨퍼런스는 올해로 스무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새로고침'이라는 주제로 시카고에서 모입니다. 예수사랑교회 학생들도 참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2030컨퍼런스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가을 학기가 이제 6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졸업하고 타 주로 이사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들과의 이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복되어도 적응되지 않는 이별의 아쉬움을 또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사랑교회를 거쳐 간 모든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청년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졸업이 곧 파송인 교회가 예수사랑교회입니다. 매 학기 졸업해서 새로운 곳으로 파송 받는 예수사랑교회 학생들을 위해 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10월의 마지막 날 어바나 삼페인에서 김대욱 목사 드림

GBGM 지원선교사

1. 조영철 선교사 (중앙아시아)
2. 이민규 선교사 (필리핀)
3. 이성일 선교사 (피지)
4. Andrew Lee 선교사 (캄보디아)
5. Jonathan Park 선교사 (베트남)
6. Young Kim 선교사 (케냐)

교회소식 (10월 교회행사)

중고등부 Lock In 10/27(금)~28(토)

1박 2일로 교회에서 지내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철야하였습니다. 예배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야식도 나누고 즐거운 게임도 하면서 친교를 하였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은 많은 아이들이 나오게 되어 참 기쁜 모임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새벽예배(11/4)

매달 한 번씩 중고등부에서는 새벽예배 드리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인생 가운데 예배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초등부 교회 창립기념 그림 그리기 대회 (10월 15일)

후러싱제일교회 창립 48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유초등부 친구들이 CCM” 교회”의 가사를 바탕으로 교회 그리기 대회 및 전시회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님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졌길 바랍니다. 블레싱 스토어 사역하시는 권사님들이 함께 3일에 걸쳐서 옮기고 정리했습니다. 블레싱 스토어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좋은 물건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 Shema Festival (10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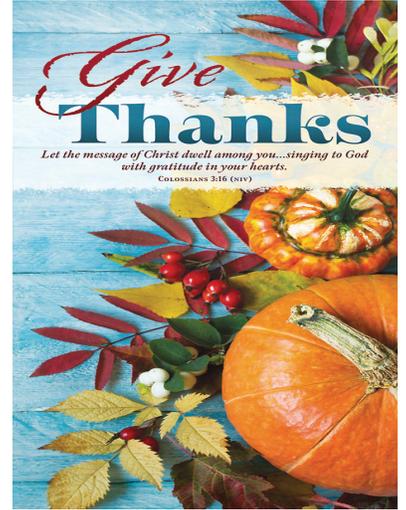
할로윈 데이에 세상 사람들은 코스튬을 입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주제로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나는 게임으로 코인을 모아서 멋진 선물도 사고, 맛있는 저녁도 먹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11~12월 행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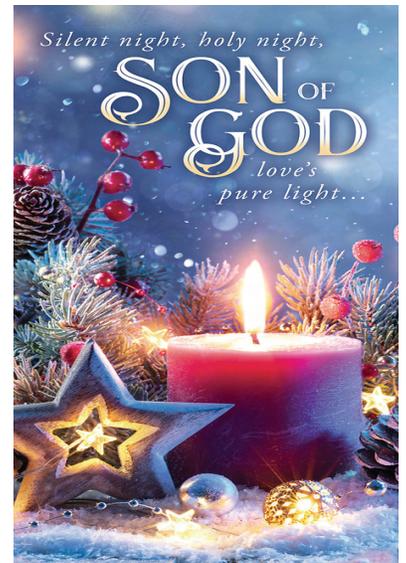
추수감사주일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11월 19일입니다. 한 해 동안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과 눈물을 헤아리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 한해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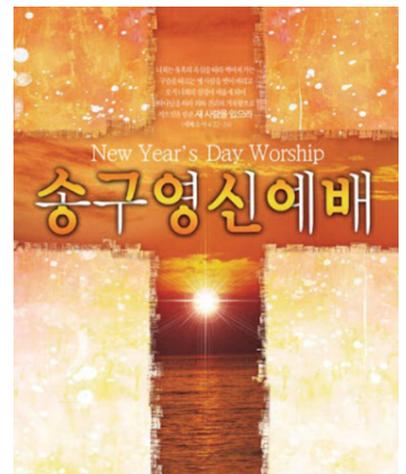
성탄예배

올해 성탄절(12월 25일)은 월요일입니다. 성탄감사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전날인 24일 주일예배는 평소와 같이 드립니다. 24일 저녁 성탄 이브 예배는 없습니다.



송구영신예배

12월 31일(주일) 송구영신예배를 저녁 11시에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새해를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4부(영어) 1:00 pm @소예배실
5부 2:30 pm @소예배실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SMALL CTR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본당/온라인
수요일 8pm 본당/온라인

교육부 예배 및 모임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11 am
유아부(만3세미만)	11 am
유치부(만3-4세)	11 am
유초등(K-5)	11 am

청소년 YOUTH (ED BLDG)

중고등부(6-12)	11 am
------------	-------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web/live/>

새벽예배와 주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설교방송 TV/RADIO

주일 10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 87.7
(앱 FM 877)

주일 9 am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월요일 7:10 pm

CGNTV (TWC 1296/1492, DTV 63.2)

토요일

CTS (Cable TV 1156, DIRECTV 2092)

- 9 pm

cbsn (www.cbsnewyork.net)

- 9am / 7pm

발행인: 김정호
편집인: 문서출판부

38-24 149th Street, Flushing, NY
11354

Tel. (718) 939-8599

Email: fumc@fumc.net

홈페이지: www.fumc.net